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황 선 봉 | 예산군수

1950년 충남 예산 출생
예산농업고등학교 졸업
1996년 예산군 재무과장
2008년 예산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전 예산발전연구소장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전국위원
2014년 민선 6기 예산군수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예산을 갈망하는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 열망의 표출이며, 특히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당선 의 기쁨과 더불어 엄중한 책임을 느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열렬한 지지는 저 개인의 영광보다는 군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압도적인 성원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지난 4년간 저는 군내 전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군민의 말씀을 듣고 그 분들의 애환과 고통을 몸으로 익히고 가슴으로 느끼며 눈으로 보고 귀를 열고 들었다. 또 저를 사랑해주신 군민께 보답하는 길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저를 불태워 지역발전을 시켜서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시대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의 시대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제가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이제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저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노력과 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가 약속한 '10대 약속 80개 세부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앞당기며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 활력이 넘치는 예산건설을 위해 총력 매진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예산군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줄 믿는다.

▲ 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이 우리 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우리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었으나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복유형 선진국형 자치단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 저수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천혜의 자원인 예당저수지를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3덕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시켜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중심도시 기반 확충,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안과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예산군은 화합과 상생발전의 새로운 예산시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제가 예산군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특집15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대기업을 유치할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재해 안전문화정착과 군민 중심의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세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교통중심 예산건설, 예당저수지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지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예방 및 상설시장 활성화, 유아, 청소년, 여성 및 교육사업 지원 확충으로 복지행정 선도, 장애인, 노인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충,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과 농림분야 지원 확대로 활기찬 농촌건설, 문화, 예술, 체육의 활성화 및 시설공간 확충입니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 군정 방향을 압축하면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단순한 농업 저수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천혜의 자원인 예당저수지를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3역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시켜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중심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복유형 선진국형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제가 군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 80개 세부 추진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예산군은 사람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힐링과 낭만이 있는 환상적인 관광특구로 우뚝 설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중심도시, 대기업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당저수지 관광휴양지 개발 및 3역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 발전시킨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 제고 및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 예산군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으로 우리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 잘사는 예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예산, 머물고 싶은 예산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군정과 지역발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역을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바로써야 하고,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추진력으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돌아보고 군민들을 만나 피부로 느끼며 예산의 내일을 설계해 왔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노력으로 저를 불태우겠다.

군민들께 약속한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 나가는 선봉에 서겠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는 서민군수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가겠다. 활기찬 예산, 누구나 살고 싶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 더 큰 사랑 더 큰 성원으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